

People & Life

거스 히딩크 8년만에 광주 온다



시각장애인 축구장 건립 MOU 체결

지난 2002년 '한국축구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거스 히딩크(64) 감독이 8년만에 광주에 온다. 지난 26일 방한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히딩크 감독은 29일 오후 1시 시각장애인 축구경기장 건립 MOU 체결과 어린이 축구교실 등을 위해 헬기로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한다.

전남대-백혈병소아암협회 협약 체결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오른쪽)는 28일 전남대 본부 접견실에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회장 안민석·왼쪽)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대 창업자금 지원증서 수여식



광주대학교(총장 김학중·가운데)는 28일 행정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창업 자금 지원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광주제일고 촌지근절 '학부모 청렴교육'



광주제일고등학교(교장 김병채)는 최근 교내 시청각실에서 학부모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촌지근절 등을 주제로 '2010년도 학부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암 이겨내고 라디오 방송 '주부들의 수다' 참여 정유선씨

“하고 싶은 일 즐기면 병도 이길 수 있죠”

자궁암도 그녀를 이길 수 없었다. 항암치료 기간에도 간호사의 눈을 피해 병원을 탈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나섰다. 그 일은 다름 아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닌 순전히 교육에 대한 욕심에 병원을 뛰쳐나온 것이다.

항암치료 기간에도 방송 수업 참여

“제가 지금 그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몸이 더 아플 것 같았어요. 내일 죽더라도 라디오 제작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있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섰죠.”

정씨는 지난 2008년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후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라디오제작 프로그램 수업을 들던 중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머리카락까지 빠지는 항암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불구하고 그녀는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싶었다.

때부터 간호사와 정씨는 쫓고 쫓기는 일이 잦아졌다. 항암치료의 특성상 햇빛을 보면 안팎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병실에 몰래 탈출하는 것은 물론 담당의사와 싸우면서 결국 배우기 위해 시청차 미디어센터로 향했다.

“암 환자라고 해서 병원에서 누워만 있고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 하고 있는 것 보다 자신의 꿈을 찾는 게 중요해요. 암을 이기는 것은 의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와 희망, 그리고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항암치료 후에도 주수다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 정씨는 병원에서 주는 약도 거부하고 운동 등을 하며 스스로를 관리했다. 긍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서울 출신인 그녀는 남편을 따라 나주시 노안면으로 내려온 후 지금까지 살고 있다. 지난해 뇌출혈로 남편이 쓰러진 후에는 정씨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 수입도 그녀 몫이다.

정씨는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은 끝도 없이 많다. 배움의 열의가 나를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며 “나를 위한 삶, 가족을 위한 삶, 사회를 위한 삶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7년째 농민들에 무료 컴퓨터 교육

뿐만 아니라 매년 자비를 들여 카네이션 꽃을 산 후 노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올해도 3000송이를 구입, 제작해 팔과 함께 나누시 노인들에게 직접 꽃아줄 예정이다.

정씨는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은 끝도 없이 많다. 배움의 열의가 나를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며 “나를 위한 삶, 가족을 위한 삶, 사회를 위한 삶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기농 생태농이 전남의 미래농업”

김봉우 친환경연회장

“전남도 친환경 농업인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농업인 소비자, 행정당국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원원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봉우(57) 전남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농업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생산과 소비확보를 통해 친환경 농업인이 생명의 농업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농업은 표면적인 인증이 아닌 진정한 유기농 생태농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편지쓰기 대회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2월22일~3월25일까지 자유 주제로 펼쳐졌으며 모두 1천여편의 편지가 응모됐다. 그 중 대상작인 안씨의 ‘말뚝 J에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딸의 마음을 움직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노력한 부모의 마음을 편지글로 표현했다.

이원모 이사장 후성학원 발전 20억 기부

이원모 학교법인 후성학원·동강학원 이사장이 학원설립 44주년을 맞아 후성학원과 동강대학에 20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원모 이사장은 후성학원(동강대학·동신유치원)과 동강학원(동신남·녀중·고교), 해인학원(동신대)의 설립자인 고(故) 이장우 이사장의 부인으로서는 3개 학원 설립에 함께 참여해 오늘의 학교를 이뤄왔다.



이원모 이사장은 사재 50여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장원문화재단'을 설립, 교육발전에 공이 지대한 숨은 교육자를 찾아내어 매년 6500만원의 장학금과 연구 격려금도 지급하고 있었다.

안민영씨 '말뚝 J에게' 어머니 편지쓰기 대상

전남체신청(청장 이재홍)은 편지쓰기 문화의 저변 확대와 국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개최한 '광주·전남 어머니 편지쓰기' 대회에서 안민영(여·47·교사)씨의 작품 '말뚝 J에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편지쓰기 대회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2월22일~3월25일까지 자유 주제로 펼쳐졌으며 모두 1천여편의 편지가 응모됐다.

그 중 대상작인 안씨의 '말뚝 J에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딸의 마음을 움직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노력한 부모의 마음을 편지글로 표현했다.



시상식은 28일 광주시 서구 전남체신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으며 편지쓰기 회원들이 틈틈이 연습한 축하노래와 플룻연주, 대상 수상자의 편지를 낭독 등 다양한 행사로 열렸다. 대상 입상자 1명, 금상 입상자 1명, 은상 입상자 2명, 동상 입상자 3명, 장려상 입상자 30명, 장려금 20만원, 은상 각 10만원(상당)을 받았다.

가요계 모녀 가수 등장

'러브리스' 발표 거미 이어

어머니 장숙정씨도 음반

가요계에 모녀 가수가 등장한다. 주인공은 29일 2년 만에 미니음반 '러브리스(LOVELESS)'를 발표하는 가수 거미(본명 박지연·29·왼쪽)와 이달 말 데뷔 음반을 발표하는 거미의 어머니 장숙정(51)씨다. 그간 나애심·김혜림, 태진아·이루, 전영록·티아라의 보람, 해바라기 이주호·이상, 나미·정철 등 2세가 부모의 뒤를 이어 가수로 데뷔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자식이 먼저 데뷔하고 어머니가 나중에 가수로 데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거미는 6곡이 수록된 미니음반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사랑은 없다'를 22일 온라인에서 먼저 공개했으며 29일 나머지 타이틀곡인 '남자라서' 등 전곡을 발표한다.

박진영 이혼 조정 합의

가수 박진영(38)과 전 부인 서모씨가 최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고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박진영과 서씨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이혼 조정에 합의해 재판으로까지 진행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영은 지난해 3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씨가 지난해 7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박진영 소유의 서울 청담동 소재 JYP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아파트 등 35억원 상당의 가업류를 신청한 바 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 ▲김판민(전남도 문화예술과장)·유영숙씨 장남 재훈군 박정숙씨 차녀 김도현양=30일(금) 오후 5시 광주 그랑시아 웨딩타워 2층(사파이어실)
▲조동수(전 광주일보 주필)·서경숙씨 장남 찬웅군 임영진(기독교정신병원장)·이명하씨 장녀 선경양=5월1일(토) 오후 5시 광주 신양파크 호텔 1층(그랜드 볼룸)
▲손상훈(그린장례식장 상무)·김미라씨 장남 준호군 황인배·김영순씨 차녀 미영양=5월1일(토) 낮 12시40분 광주시 광산구 화이트예식장 1층(그랜드 특실)
▲이희재·배영원씨 장남 광세군 김중범(전 국민은행 호남북영업지원본부장)·김인자씨 장녀 태은양=5월1일(토)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

회관 세종홀.

- ▲이성식((유)고속에너지 대표)·이숙경씨 장남 현중군 민석기·전정이씨 장녀 은영양=5월1일(토) 오후 1시 신안비치호텔 1층(아이리스 홀)
▲공군전우회 광주지회 2010년도 정기총회=29일(목) 오후 6시30분 농성동 상록회관, 공군예비역은 누구나 참석 가능. 016-630-0824.
▲남평중학교 총동창회(준비위원장 김성수) 창립총회 및 체육대회=5월1일(토) 오전 10시 교내 운동장. 011-613-7652.
▲옥곡고등학교 32회 동창회(회장 최규필)=5월1일(토) 오후 7시 옥곡 전남축산식육식당. 010-3203-4392.

향우회

- ▲재광 곡성군 삼기면 정기총회(회장 김재정)=5월2일(일) 오후 6시 향우회 사무소. 062-267-7767.

중친회

- ▲장흥위씨 광주중친회(회장 위인백) 정기총회=29일(목) 오후 6시 30분 신성식당. 062-232-0176.
▲평산신씨 광주·전남화수회(회장 신락현) 정기총회=5월1일(토) 오전 11시 국제관광호텔 7층 대연회장. 011-609-4222.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모집

-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치리생생활관 호남지역 기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한국은퇴자협회 사회봉사 회원 모집=현직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 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의원 및 전남북지역의 지회장자신 분 환영. 062-223-1357, 010-9773-2456
▲산수도서관 서예·문인화 교실

- 무료수강생 모집=접수 5월3일(월)까지 제14기 4개월 과정 서예교실 무료강습, 개강일 5월4일(화) 오전 10시, 수강일은 매주 화·목 10~12시, 문인화는 오후 2~4시까지. 062-232-6694~5.
▲꿈을 품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서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문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동장 예술고. 011-609-2850(전일찬).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오페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 모집=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력자로 역량있는 자. 061-334-3636.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음

- ▲구처남씨 별세 김추차·송애·송숙씨 모친상=발인 30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유충택씨 별세 명철·승한·승철·승호·승룡·승록씨 부친상=발인 30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마음까지 편안함- 금호장례식장 227-4000.
최은성(남/78세)
주부: 조경원/김순이, 용영/박도영, 유재/조흥희/왕삼경
출발: 5월1일(토)
발인: 04월(일)
장지: 나주 금천선영
바다보다 푸른했던 천인애 순국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
-금호장례식장 직원일동-
넓은주차장 -경감할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자랑하는 프리드
기입문의 1688-3740
현대종합상조 권국영 대표이사